



- 특집/ 감사편지
- OC 입당감사예배
- 교육부 / EM 소식
- 간증 / 기고



목자세미나에 참가한 권사님들이 그룹별 소개시간에 활짝 웃고 있다. <사진: 배이레 전도사>

■ 목자세미나

참된 리더의 자세로 '재헌신' 다짐

주안예교회의 목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목자들과 작은목자들을 위한 목자 세미나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Oxnard 에 위치한 "Residence Inn by Marriott" 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있었다.

세미나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놀자" 라는 주제로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의 배려로 재미난 게임도 하고 한 테이블에 자리한 분들과 서로를 소개하며 알아가는 시간도 소중했다.

하지만 그냥 놀기만 하는게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올즈음, 갑자기 감상하기 시작한 영화 3편(비록 편집되어 30분짜리였지만)은 어떤 세미나보다도 강하게 리더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게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영화의 내용을 소재로 토론을 하는 시간에는 오랜시간 목자의 자리를 섬겨오셨던 분들도, 이제 막 목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분들도 각자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리더의 역할과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쫄하게 나누어 보기도 했다.

다가오는 한 해를 목자라는 타이틀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려는 리더들에게 "목자 세미나" 라는 행사는 가늘게나마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을 세워볼수 있게 해준 길잡이가 되었을거라 짐작하며, 서로 나누었던 뜨거운 마음이, 힘겹게 여겨지는 순간마다 재생되는 에너지로 저장되기를 소망해본다.

<관계기사: 4-5면> | 오희경 권사 |

■ OC 채플 입당감사예배

넉넉한 공간, 기쁨이 넘치는 예배



10월 10일 Orange County Chapel 입당 감사 예배를 오후 1시에 가졌습니다.

5번과 91번이 만나는 좋은 로케이션에 아름다운 성전이 OC 성도들을 반갑게 맞아 준 것은 10월 3일이었지만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의 움직임이라 입당 예배를 일주일 뒤인 10월 10일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만 모여 예배 드리다가 아이들의 나이 따라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교실과 놀이터도 있고, 예배 후에 목장 모임도 가능한 친교실도 있으며 넉넉한 파킹랏도 있지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도 행복했던 Buena Park 성전이 우리의 필요를 충족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떠나야 하는 성도들의 아쉬움, 예배 드리는 공간만 쓸 수 밖에 없는 불편, 하나 뿐인 화장실 등.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넓고, 깨끗한 성전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새 예배당은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부터 어른의 예배 공간까지 넉넉하고 아름다운 성전이기에 주안예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될 때 이 지역에 많은 목마른 영혼들의 샘물이 되어 줄 것을 믿으며 감사 했습니다.

한인교회가 같은 한인교회를 맞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리에게 기꺼이 문을 열어 주신 한인 은혜의강교회와 Orange County United Methodist Church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입당 예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서 OC의 채플의 기도의 그루터기가 기도 자리를 지킵니다. 서로 감사하며, 서로 격려 하며 신앙의 성숙함이 서로를 성장케 하는 주안에 교회 OC Chapel이 될 것을 믿으며, 기뻐하며 입당 예배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이에스더 권사 |

■ 입당예배 봉사자들을 보며...

자원하는 마음, 섬기는 손길

누가 산악인에게 산에 왜 오르냐고 물었더니,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안예교회 봉사자들에게 문득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때든지 무조건 달려오느냐고 말입니다.

지난 10월 10일(주일)은 주안예교회 OC채플 입당감사예배가 있던 날입니다. 예배는 오후 1시부터였지만 오전 9시에 벌써 10여명의 봉사자들이 OC채플 친교실에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각자 여러 분야로 나누어 김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떡을 정성스레 선물 상자에 담기도 하고 또 포도, 파인애플등 과일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계셨습니다.

10시쯤 되니 20여명으로 봉사자들은 늘어났고 손들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인들뿐 아니라 OC채플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미국교회와 한국 감리교 교인들께 드릴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10시 30분쯤 몇몇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선물을 들고 미국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 예배당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분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모두에게 전해 드릴 때, 저들은 갑작스런 선물에 잠시 당황하며 무슨 선물이라고 묻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쁨과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모두 환하게 웃으시며 Thank you를 연발했습니다. 물론 이어서 드러지는 한인교회 교인들께도 같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봉사하는 주안예교회 봉사자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음을 느꼈습니다. 누구 하나 힘들어 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달려오시냐구요? 설마 교회가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 말씀을 받고 이제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 나아가는 주의 사자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의 풍성한 양식을 먹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어 주시고, 시시때때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 6,70대 주안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영, 육간에 건강 주시옵소서. | 이광영 집사 |

■ 봉사자 격려모임



사랑의 수고에 마음의 감사를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끝내고 BP 채플에서 수고한 리더들을 목회부에서 초대해 주셨다.

셋업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일했던 팀, 음향으로, 영상으로 자리를 지키며 수고 했던 팀, 찬양으로 온 성도들을 말씀 받을 자리로 인도하며 땀을 흘리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해 온 찬양팀, 수고하고 일하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 김밥을 맡아 부모의 역할을 다 하셨던 봉사국, 새신자들을 맞으며 열을 재며 반기던 새가족국, 팬데믹을 이기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영접한 예배국, 파킹을 돕고,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등대가 되어 주었던 차량국...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낸 일꾼들을 최혁 목사님과 목회부 사역자들이 손수 음식을 나르며 대접해 주셨다.

가을 꽃을 센터 피스로 해서 예쁜 네프킨에 들어왔은 수저, 우리 목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양장피, 잡채, 간pong 새우와 신선한 야채 샐러드. 하얀 식기에 올려진 음식들이 그 품위와 맛을 더해 주었다.

언제나 성도를 위한 담임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는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하며 축복하시는 그 기도는 얼마나 달콤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너무 감사해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돌리며 그 영광을 돌려 드릴 날이 연상 되는 대접을 받았다. 세상에서 받는 대접과는 다른, 눈물이 섞인 감사는 받아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큰 위로였다.

교회는 언제나 할 일이 있고, 일을 찾아 주님 섬기듯 섬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안 예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일꾼되어 다시 가질 감사 위로 만찬에 자리가 부족해 지기를 기대 합니다. | 이예스더 권사 |



■ 사역을 시작하며/ 박찬경 전도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처럼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은 제 인생의 중반기에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수련회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쑥스러운 성격 때문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던 중, 색소폰을 배우면서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버클리음대에서 색소폰을 전공하여 음악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자의 길을 걷게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신학공부를 시작하고, 한편으로 찬양곡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혁 담임목사님의 설교말씀 중에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바탕으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앨범이 나올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평생 음악을 하였기에 음악으로 교회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

특별히 흠뻑스케이 센터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림 목장 어르신들을 섬기며 심방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사역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부족함 투성이인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으로는 아내(황선아)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동아들 한결이가 있습니다. | 임용자 기자 정리 |

■ 교우소식



존 배 집사(배유진 전도사)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진이가 (난생 처음?) 주일예배에 나와 담임목사와 교우들의 축복기도를 받았다. 예진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딸 되기를...

■ 재헌신 다짐/ 감사의 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떼 성실하게 돌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박2일 진행된 목자수련회를 통해 60여명의 목자, 부목자 부부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리더십의 모습을 배우며 재헌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새롭게 목자의 사명을 새롭게 다진 이들의 각오와 목자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요약된 글을 실습니다(편집자 주)

정도영 장로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베어하고 목원들과 나눔을 통해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김질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벌거나 라 교회에서 상처 받고 온 목원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이혜령 권사 새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MP채널에서 지난 7년간 섬기고 이제 벨리채널로 돌아와 새가족들을 새 목원으로 만나 섬겨서역하지 않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지켜주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될 때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이준 권사 저희 부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목원들이 기도와 음식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장혜덕 권사 리더의 자리가 부담스럽지만 나를 성감시키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황영옥 권사 비약하지만 주님이 힘 주시는데로 저만큼 못 다한 사랑을 연호하신 목원들과 힘껏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미경 권사 여러 해 목자로 섬기다 잠시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목원들의 열거를 떠올리며 부족한 저희를 믿고 따라 준 그 사랑에 더욱 힘을 내어 끝까지 함께하는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용수 장로 비록 두 가령 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또한 바라는 바를 같이 느낄 수 있게,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결단합니다.

김진석 장로 부족한 리더에게 너무도 헌신적인 목원들을 바라보면 늘 감사합니다. 저들이 헌신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미 심령의 변화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승태 집사 허락하신 교회에서 충만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비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섬기겠습니다.

문성훈 집사 아내(문수경 권사)가 목원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고 섬기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 정신과 사랑을 아는 목원들도 서로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받을 수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목원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 드립니다.

문병훈 집사 목자로 섬기면서 세상 제가 사랑이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수련회를 통해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리고 부족하지만 좀 더 사랑으로 목원들의 마음을 열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섭 집사 목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무슨 선함이 있고, 무슨 리더십이 있었습니까 목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섬길 수 있도록 여유를 주셨고, 목원들을 보며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심정으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조력

자들과 배울 수 있는, 함께하는 주체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종성 집사 지난 시간 섬겼던 목장에서는 너무 좋은 목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원들을 놓고 나가버린 부족한 죄인이 되어서 다시 목자로 부름을 받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주고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양윤석 집사 목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 내려 놓으려는 중이었습니다. 차가만 열심히 해버려도 안되고 내려 놓기에는 하나님께 받을 사랑이 너무 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표 집사 잘 섬기지 못했던 부족함을 목자 직분을 내려놓음으로 해결하려는 내 의를 나무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발견된 주님의 양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는 일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이현보 집사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니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목원들의 말을 들어주셔서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나의 인생의 고향을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의 선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집사 노후했던 목자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장모임을 통해 저보다 더 믿음이 깊고 훌륭한 목원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 집사 작은 섬김에도 크게 감사해하는 목원들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이 화

합과 서로의 신앙 성장을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리엄 집사 목자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랑, 책임감, 리더십을 되새겼습니다. 중장년 목자를 맡았을 때 목원들이 이미 교회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라 사실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단합과 조화를 이루는 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원들 가정을 힘써 돌보는 목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김재동 집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장현 집사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행복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 생각, 뜻을 본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릇으로 사용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인범 장로 철저치 준비해 목원들을 섬기고, 교회의 훈련과 공부에 참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조하기를 결단합니다.

김경일 장로 목원들이 대부분 저희 부부보다 연세가 높고 신앙 경력이 많음에도 잘 협조하시고 순종해 주심에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목장 모임에서도 받은 은혜를 잘 나누어 주시고 참석률도 높고 건강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편히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찬국 장로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제게 주신 은혜를 목원들과 나누고, 최면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생각에 재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기 장로 목원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재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나형철 장로 제 영적으로 비서 혹은 주위에 부담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 하는데 감사 말씀이었습니다. 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정혜옥 권사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 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열려하며 서로가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문효선 권사 많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허락되지 않은 목장 식구들을 보며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랑 없음을 보게 하시고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가족을 섬기는 마음으로 더욱 최면하며 섬겨 보기를 다짐합니다. 목자로 섬기면서 주변을 돌이켜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감을 보며 변화를 느낍니다. 이제는 문제 앞에서 저의 모습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재헌신 다짐/ 감사의 글

소통하고 공감하는 리더,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강렐렌 집사 주안예일공 공부를 시작하며 이제는 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부부에게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현숙 집사 이제 목자를 시작하자 5-6 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헌신 이라고 하시어서 당면히 헌신하지 않으면 그동안 말씀으로 배웠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부족하지만 헌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진화 집사 리더는 영적으로 목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며 사탄이 목원들을 공격할 때 말씀의 겹으로 그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계순 권사 새로운 마음으로 목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수경 권사 하나님께 더 열심히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천년 더 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처럼 이명에서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도록 목원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복희 권사 2022년도 목자 재헌신을 권유 받고 하나님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목원들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승낙 했습니다.

장재희 권사 목자인 이복희 권사님과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돕는자의 역할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권사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못했음을 회개하며,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 헌신 하게 되었습니다. 맡겨주신 목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김옥희 권사 목원들과 하나님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을 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목자를 믿고 머물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늘 연구하고 준비하는 리더,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리더가 되기를 노력 하겠습니다.

김현숙 권사 하나님을 나의 거울 삼아 목원들을 주님 섬기듯 섬기겠습니다. 다시한번 저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우리 목원들을 기도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섬기게 최선을 감사 드립니다.

선순수님 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김규실 권사 배우신 은혜가 너무 많아 자질이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밖에 없었고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있을동안 섬김의 자리는 이렇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조원 집사 영커를 1 목장을 섬기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의 아픔과 침침에 동참하며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처럼 목원들을 순전히 여기며 겹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다시한번 섬기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강대니 집사 처음으로 작은목자로 섬기게 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잘 감당하고 진심으로 목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이선민 집사 재헌신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었고, 저에게 맡기신 양떼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듯 목숨을 다해서 청서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입니다.

장기연 장로 펜데믹으로 인하여 목장모임을 줄이셨던 나 자신부터 많이 게을러졌음을 고백하며, 목자의 길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목원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 가기를 다짐하며 기도로 간구합니다.

배진호 장로 목자로 섬기면서 전과같은 가려운 섬길 것 같아 회개하며 남은 2021년과 그 후 날들을 목원들을 섬길 때 전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며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이애슬리 집사 처음 주안예일교회로 인도하셨던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던 중 동일한 메시지를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김경배 장로 목원들을 섬기며 오직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봅니다. 그들의 부족을 보며 나를 보게 되었고 그들의 선한 마음을 대할때면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자로서의 할 섬김이란 목

원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삶에 공감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느끼게 하시어서 더욱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김현경 집사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맛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애 하셨는지 목자라는 사역을 통해 제가 성장하며 많이 배웁니다. 꼭 열매가 없어도 그저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말씀을 거울삼아 끝까지 사랑하는 용기와 결단을 주님 또한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오희경 권사 보잘것 없는 목자를 리더로 여기며 제 모습보다 더 크게 봐 주시며 오래도록 함께 가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을때, 그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던 마음을 돌이켜서 주안예일교회의 지체로 섬김의자리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저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전기순 권사 비거니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목원이 이제는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을 성장 시키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을때 저의 기도도 응답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양영 권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감히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몰랐던 목원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며 삶속에 적용하여 성장해가는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유영애 권사 부족한 우리 가정이 목원들을 섬기며 고제하여 우리 자식을 돌보아게 해 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묵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원들 천사같은 천사같은 위해서 기도 드릴

때 오직 저 마음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말걸 장로 제가 섬기는 2가 목장을 대부분 주안예일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새가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찬분 찬분이 너무 귀하고 선해서 귀한 목장을 맡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진지한 신앙의 간증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내어놓는 나눔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김선자 권사 목자로 섬기면서 마음을 나누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목원이 있을 때는 침도 들지않,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후 만남을 가졌을때 변화된 모습으로 공동체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말걸 장로 제가 섬기는 2가 목장을 대부분 주안예일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새가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찬분 찬분이 너무 귀하고 선해서 귀한 목장을 맡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진지한 신앙의 간증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내어놓는 나눔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김선자 권사 목자로 섬기면서 마음을 나누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목원이 있을 때는 침도 들지않,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후 만남을 가졌을때 변화된 모습으로 공동체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현숙 집사 저는 목자가 아닌 목원이었을 때에는 목자님이 이끄시는대로 잘 따르는 good follower 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자가 되어보니 good follower 가 얼마나 힘겨워하고 위로가 되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로 몇 달 섬기면서 그동안 목자임을 좀더 위로하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게 부끄러워 했습니다. 이제는 그마음을 목원들을 향한 사랑으로 보답하려 합니다. 격은것에 서운해 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목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드릴수 있으며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한선 집사 리더로서 철저한 준비와 연구자세를 다시한번 점검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을 다짐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오만을 내려놓고 성령의 힘에 의지한 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처음 자의만 타의만으로 시작된 목자 사역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사용해야 할 시간들에 대한 걱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섬김의 시간들을 보내며 오직 저의 속목과 은혜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원들의 격려와 사랑은 제가 드린 시간에 비할 수 없는 크기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함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나만 알고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게 하시고 섬길수 있는 목원들을 허락하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현주 집사 아직까지 목자로 섬기지는 않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의 모형을 보며 내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음을 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로 통해 신뢰와 믿음이 생기기, 또한 회생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하는 삶에서 패로 지치고, 순간 계속 이렇게 가하라는 것 매가 있지만 영적 싸움에는 휴전이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안예일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머리 환경까지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헌양을 올립니다.



'이 나이에 운전은...'

저는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꿈에도 그리던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이순 권사

버스가 오지 않을 때면 30분에서 1시간 까지도 기다리며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며 간절히 기도를 드렸었지요. 운전면허는 6년 전에 취득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긴 했는데 그 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길을 익혀두었고, 또한 제가 하는일에 대해서 보람은 있지만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운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담대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운전을 시작한 지 이제 3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교회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저의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시간, 귀한 시간'

BP채플에 새벽 여섯시에 나와서 악기들을 셋업하고 영상, 자막, 음향 등 모든 준비들이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짧은 시간내에 연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잡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지혜 성도

셋업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한번도 마주치지 못한 집사님들과도 더 알게되는 시간이었고 한 목적을 가지고 분주함 속에 움직이다 찬양팀끼리 모여 함께 기도도 준비하고 긴장감속에 예배가 시작되면 그 예배속에서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정해진 시간 안에 철수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정리해야하지만 성도들이 움직였던 모습을 보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 첫사랑 회복

나의 딸 성원아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는 너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다(시 139:1) 그렇기에 나는 심지어 너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다 세고 있어(마10:29-31)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난 이미 너를 택하기로 결정했단다(엡1:11-12).

저는 처녀 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찬양하며 사는 것이 기도며 목표였습니다. 레슨을 하다가도 찬양을 하러 해외로 나가야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보내 주신다는 신뢰가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을 하러 다녔고, 찬양하기 위해 최고의 키보드를 사려고 모아둔 돈을 현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찬양하러 일본을 가면서도 1도 망설임 없이 나의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오로지 나의 목소리로 인해 영적 치유가 있길 기도하며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결혼을 하고 모든 것에 여유가 생기면서 목숨바쳐 하나님을 찬양하던 내가 아닌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러던 제가 홀몬 변화로 1년에 40파운드가 찌면서 외모가 달라지고 성대 결절이 생겨서 예전에 나던 소리가 안 나오면서 좌절과 무대공포라는 게 나에게 찾아오고 뒤에 숨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잘나가던 남편의 사업도 안 되어서 집 팔아 시작한 식당도 코로나로 인해 닫게 되었고... 건강하셨던 엄마는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치매가 오고 1년 전에 우리집에 걸어 오셨던 분이 지금은 일어나질 못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가정은 뭐 이리도 되는 게 없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아니 저희 부부에게 주시는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코로나로 인해 가게를 닫았기에 엄마를 모시고 올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엄마 혼자 외롭게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 들어서요.

또한 갱년기로 인해 불평, 불만, 짜증이 나올 이 때에 남편이 먼저 장모님 모시고 오자고 했습니다. 자기와 내가 거실에서 생활하자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낮잠을 잘 때는 엄마 침대에 누워 손잡고 누워있고 일하고 들어와서는 '오빠 왔어(엄마가 사위를 못 알아보시고 오빠라고 함)' 라며 노래 불러 주면서 재롱떠는 모습에 저는 감사할 수 밖에 없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너의 모습과 소리가 뭐라고 자신을 퐁퐁 묶어두고 자신감 없이 사니, 난 너의 걸모습을 소리를 좋아한 게 아닌 너의 맘을 사랑한 거란다' 라고 하시며 채찍질 아닌 사랑의 음성으로 저를 평평 울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아픔과 절망이 있었지만 저는 첫 사랑을 회복시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자신감을 다 회복하진 않았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박성원 권사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나누고 싶나요...

아주 특별한 시기에 맞이하는 감사의 계절에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감사와 은총으로 여겨졌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편지형식의 글을 모집합니다.

목회부와 문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최혜 담임목사도 직접 여러분의 글을 읽고 우수작을 선정하는데 참여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공모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으로만 물어두기에는 아까운 감사의 사연들을 이번 기회에 나누면서 또 다른 분들에게는 위로를 드리기도 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문의: 문서국 오희경 (213) 820-2298 / icccnews123@gmail.com

코로나 감염을 통해 체험한 성도들의 사랑

몇 주 전 주말날 아침 남편이 권사님들을 픽업하는 시간에 무척 힘들어하고 피곤해 보이지만 감기인가 하고 대수롭지않게 여겼다. 하지만, 주일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흑시나 하는 마음에 곧장 코로나 자가키트 검사를 하였다. 남편의 결과는 Positive, 나는 Negative로 나왔다.

우리는 일찍히 백신접종을 완료해 안심하고 지냈는데 코로나에 감염되다니...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아서 다시 한 시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PCR 검사를 해 본 결과 둘 다 Positive, 그 시간부터 우리 식구들의 일상 생활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를 접촉한 사람들과 교회에 연락을 하였고, 놀란 우리 딸은 손자 손녀들을 학교에서 픽업해 곧장 집을 싸서 호텔로 들어갔다. 백신의 효과 덕분인지 남편의 증상은 다행스럽게도 약했다. 그러나, 나는 그 때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목이 칼칼하고, 기운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후각이 무디어졌다.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다. 밤에는 기침이 나와서 혹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전화기를 머리맡에 두고 겨우 잠을 청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고백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 할지라, 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는 찬양 가사가 특 나의 마음에 다가 왔다. 그렇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

사실 나는 3년 전 이맘때 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다. 차가 중앙 분리대를 치고 몇 번이나 뱅뱅 돌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큰 사고였다. 기적적으로 살려 주셨다. 아직도 그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지만,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컸다. 그동안 이민생활 가운데 앞만 보고 살면서 집에서 조용히 쉬는 시간을 즐기지 못한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쉬어갈 수 있는 계기를 주셨다 생각했고, 그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내 무릎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조차 나에게 허락하지 못했음을 되돌아 보며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

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부부가 집에서 2주동안 격리할 때 주안에 교회의 목사님, 성도님들이 나누어 주신 사랑은 감동과 축복이었다. 식사 시간에 맞춰 집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메세지와 전화로 격려와 기도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러한 귀한 나눔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 또한 딸 식구들을 다 내보내고 마음이 편치 않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손녀 아비를 키워 주신 장로님 부부께서 딸 가족을 위해 안식의 공간을 제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희 가족에게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신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을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올려 드린다.



이준 권사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

저는 그냥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노래방에서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지 주일에 감히 제가 하나님께 찬양팀 보컬로 찬양을 올리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교회도 자주 빠지고 성실히 모임도 임하지 않았을 때, 최혁 목사님이 청년부를 위해 인도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미나를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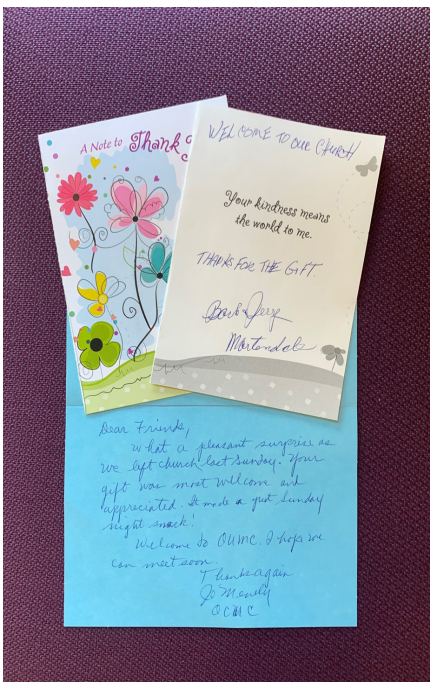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의 삶을 생각하고 있던 중 이성우 전도사님께서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주셨고, 그 연락이 하나님의 calling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찬양팀을 섬기게 됐습니다.

찬양팀을 섬긴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른 시간부터 BP 채플을 위해 봉사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 & 자매들을 보며 항상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열정을 보게 되었고, 더 도전받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과 나도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고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고 너무 부족하지만 찬양팀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찬양으로 제 목소리를 사용해주시는 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노경미 성도



■ Upclose with Eubene Kim

Food is a Way of Understanding Culture

Eubene's tremendous knowledge of food, experience, and passionate praise of God inspires. Here is a sneak peek. / Monica Kim

What did ICCC EM's Formal Dining Event involve?

The ICCC EM's Formal Dining Etiquette demonstration, aimed to bring awareness of what is expected at a fine dining establishment. We demonstrated proper mannerism through an explanation of dress code, utensils, and plating.

Can you share a brief recap of the social/business dining etiquette that you taught the EM members?

Every dining establishment is different on how a serve is run however always remember:

- Always wait for the host is always first to eat! It's common courtesy
 - When presented multiple sets of utensils use the outer set for each course
 - Place your napkin on your chair to indicate that you'll be back
 - Always follow dress code
- While dining you should refrain from:
- Placing elbows on the table
 - Interrupting the host

Fine Dining establishments offer a experience so the most important rule is to have fun!



The Sweetest Three Brothers (From Left Eubene, Shane, Eumene)

How did you become so knowledgeable about fine dining?

I have six years restaurant experience and the majority of my experience was at fine dining establishments. I mainly worked in the kitchen, however I was properly trained to be a waiter during my curriculum at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Hyde Park. The training was vigorous and required dining etiquette, product knowledge, and a heart to serve.

How do you want to be using the talent and knowledge that God has given you through your schooling in the future?

I believe God gave me the experi-

ence and knowledge of food to understand culture. Food plays a major role in everyone's life especially when it comes down to culture. I am able to appreciate the various cuisines passed down from our predecessors.

When did you come to ICCC and what is your experience of being part of the EM family?

I started coming to ICCC about 3 to 4 months ago with my brothers. Right from the start I felt God's overwhelming grace. A loving community that shares God's heart with all. I was a little hesitant at first but God proves to us that we are his plan!

Fellowship The Fancy Way

ICCC EM's special Fomal Dining and Etiquette Event was held on October 17th after Lord's Day EM service. It was pleasantly surprising and even ingenious to see young women and men learning the complexities of do's and don'ts for formal and social dining. The answers for the order of using the utensils, what to do with the cloth napkin when taking a break to go to the powder room, and much more were cleared up for many during this event. EM even had its very own runway of models wearing, black tie, business formal and business casual attire on the catwalk. | Monica Kim |



■ Fellowship EM Style

Reenacting God's Word as We React to God's Word



October Home Fellowship

There's something to be said when someone opens up their home - a vulnerability, a welcoming into their lives. We had that privilege at our sister Elaine's home as we gathered after Lord's Day worship to do small groups in her backyard - in covid conscientiousness. It was a time of discussing, reflecting and declaring God's word. Intangibly, it was a time devoted to gathering and to fellowship. Such devotion fuels our striving for oneness in Christ as ICCC EM.



Pumpkin Spice & Everything Nice

What better way of welcoming this season of harvest than baking delicious pumpkin bread at church with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Laughter was in the air with pumpkin spice and everything nice as members mixed, stirred, poured, baked, and glazed away in fellowship.

“ *Sharing the Love of Jesus*



I am thankful of the opportunity to share in the Kingdom work for Christ. I realized how lacking I am, but I take comfort in serving. His flock pointing the way to Jesus, although physically tired, my spirit is refreshed because I know the Lord is with me and I in Him and He sustains me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myself and my family, my wife and I marvel at His goodness and are strengthened together. Our relationship is stronger because of serving and experiencing that power of His grace. I am thankful to be able to share of the real love of Jesus. | Tom Park |

”

■ EM Connected

Sending Our Love and Encouragement

On Sunday, October 3rd, EM members got together to prepare care packages for our EM members who are away for college. We prepared 14 packages to send out to show that we are thinking about them. We added bible verse cards inside the packages so that they would be encouraged through the word of God, we wrote letters to each of them, labeled each items in the package with tag related to certain bible verses for encouragement and humor. We enjoyed putting the packages together thinking about ou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were away and also prayed for them as we were putting the packages together. It was a nice experience/activity to do for those who were here to show and send our love and thoughts to those who are away. | Jennifer Oh |



Yujin Song I want to thank ICCC and everyone who didn't forget and checked up on how I was doing from time to time.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I went to church but receiving the care package strengthened my faith. Being in college has made it difficult to find a church but asking God to lead me to a church to hear and learn His Word helped me open my eyes to see Him more clearly with the help of all the pastors and everyone at ICCC. The care package was a delightful reminder that I was also a beloved daughter of God.

Seobin Yun Receiving a care package not only reminded me that I'm still part of ICCC but comforted and encouraged me. It's so fascinating to see and understand how God uses His people to make me encounter His love. I thank God for allowing His people to have a heart after Him, and I pray that I will be able to reflect all the love and support I've received back to His people through given talents and situations.

Chloe Kim When I got the package I felt incredibly happy and loved, especially after reading all the notes and letters everyone sent. It was really sweet knowing that the church is thinking about me even when I'm away, and I'm incredibly grateful for everyone's kindness. All the gifts and letters motivated me to try hard in school so I don't let anyone down.



Micah Kim At first when I picked up the package from the delivery man, I was really confused about who sent the package. Then when I opened the package, I was really surprised by all the gifts that were sent to me. I was really happy to know that everyone sent me the candies and the notes. It's nice to know that even though I am back in Marina, there are others that still think of me from church. I can't wait to be able to come back to LA for both school and to be able to come back to church with everyone else.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ose who have sent me the notes and the gifts.

Caleb Yun I am very thankful that I was able to receive this care package. It reminded me of my place in ICCC and that I am still cared for

even though I am away for college. The care package I received helped me get through my work and my finals. Thank you ICCC!

Elim Choi I happened to visit the one Sunday EM was making care packages for college students away from home. Although I wasn't able to experience the surprise aspect to the gift, it was really touching to see the genuineness that went into each letter that was written and the sincerity in how everyone decorated and put together the packages. Being able to watch the process behind making the care package made the gift even more precious and heartfelt. I appreciate EM for their never-changing heart for those who are away.

Jane Kim When my school informed me that I received a package, I automatically knew that it was the care package from church. I never thought I would find myself walking to my school's mailroom with such joy and 설레임. Upon receiving my package, I was overwhelmed with warmth and love. From the handwritten address on the package to the goodies and heartwarming letters of encouragement, I was reminded of my lovely brothers and sisters back home. I'm incredibly grateful for the loving community God has gifted me with at ICCC. I'm looking forward to visiting for winter break! Can't wait to see everyone's faces!!

■ ICY 찬양팀

■ IC Kidz Connect

‘하나님을 앞으로 더 가까이’



ICY 찬양팀이 새로운 멤버로 훈련을 시작한 지 서너 달이 되었다. 매주 모여 연습하고 이성우 전도사님과 영성 훈련, 그리고 매일 큐티 나눔을 통해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며 예배를 돕는 찬양팀에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또한 ICY에서 성장한 EM 리더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지도를 통해 새로운 팀의 구성에도 한 몫 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구성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이끄는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모든 ICY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원해 본다.



| 류명수 기자 |

‘우리 수요일에 만나요!’



우리 교회의 귀염둥이와 미래인 ICKidz를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제니퍼 전도사님, 배이레 전도사님, 그리고 글로리아 선생님과 함께 Kidz Connect 이라는 수요일 배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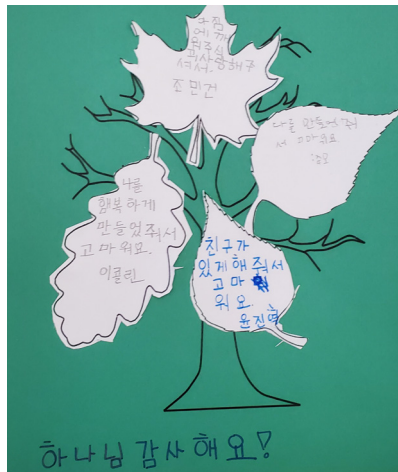


아이들이 바쁜 스케줄과 많은 숙제 속에서도 시간이 될 때 마다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며, 주일에 배운 설교 포인트와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액티비티를 합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법도 천천히 배우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큐티를 하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줌으로 들어올 때마다 웃는 얼굴로 항상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전도사님들은 힘을 얻고 아이들의 예쁜 마음씨를 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나라도 더 좋을까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오제니퍼 전도사 |

하나님 감사해요 !



■ 주안에말씀 소감문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주안에교회에 등록된 지 두 주일만에 '주안에말씀' 과정을 등록했다. 성경은 그 뜻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는 교육을



전호선 장로

받은 내게 이 훈련은 당혹스러움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훈련과정 지침서를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처음의 당혹스러움은 신뢰와 감사로 바뀌어갔다.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의 여유(?)도 갖게 되었다.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으며 알게된 것은 집중력이 생긴다는 점이었다. 가끔씩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은혜의 시간이 내게 주어지기도 했다.

전에는 일 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을 했다가 흐름이 끊기면 중간에 중단을 하기도 했는데 속독을 하니 맥이 끊기는 일이 없어졌고, 영적인 게으름이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최 혁 목사님의 '주안에 빛' 강의는 성경을 읽어가는데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었고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언젠가 신약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 꼭 수강할 예정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기가 더 쉬워지고 재미있으리라는 기대를 해 본다. 또 하나의 소득은 성경을 읽는 자신감이다. 하루에 한 시간만 할애하면 일 년에 두세 차례는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다.

성경을 읽으며 의문점이 생기면 여러 책을 들여다보곤 하여 며칠씩 제자리 걸음을 하곤 하다가 성경 일독에 이삼 년씩 걸릴 때도 있었는데, 집중하여 계속하여 읽다보니 그 의문점이 나중에 저절로 풀리는 경험도 하였다. "하나님의 마음(뜻)을 읽도록 노력하라" 는 최 목사님의 말씀은 이번 '주안에말씀' 훈련에 내 슬로건 이었다.

나는 성경 통독을 계속하기로 나와 의 약속을 했다. 교회에서 역사 순서대로의 통독만 과정이 개설되면 등록할 예정이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세네갈 김승주 선교사

'빛물 고인 빈터를 꿈의 축구장으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추수감사절의 감사 간증을 나눕니다.

지난 7월 20일 부터 8월 10일경까지 심한 통증과 고열로 예수님을 부르며 옥상에서 밤낮을 뒹굴었습니다. 병원도 갈 수 없었고 제대로 처방된 약 하나 복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된 것은, 주안에교회의 최혁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께서 세네갈을 위해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큰 감사 말씀 올립니다.

해마다 우기철에 침수되는 축구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가로세로 각 100미터 크기의 운동장을 콘크리트 담으로 두르고 길이 17m의 5계단 정도의 관람석 스탠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장 준비의 계획은 제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의 체험 현장을 만들어 스스로 훈련코자 인천에 있는 파송교회(월드와이드교회) 앞에 30년이 넘는 오래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그곳을 아프리카라고 여기며 2년동안 거주하다 전세를 주고 선교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만 광풍이 불던 아파트 값이 인천에도 8월이 되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전세금을 공제하고 약 5만 달러만 남아도 좋겠다 했던 것이 13만 달러 정도의 차액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축구장 준비의 비용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정도로만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축구장이 우기에 민가에 흐르는 빗물을 담아주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콘크리트 울타리로 인해 물 흐름이 차단되어 더 많은

민가의 침수 피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놓고, 전문가의 컨설팅이 절대 필요했습니다.

우기철이 아이들 여름방학 기간 3개월과 겹치므로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의 고인물이 마르기까지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늘 마음을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65:24)

우연히 DAKAR 한인교회에 참석했다가 새로 부임하신 현지 대사를 모시고 온 영사에게 식사 후에 저의 고민을 황설수설 어수선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이틀 후에, 영사로부터 전화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코이카 사업 외주업체로 토목 전문가가 며칠 후면 세네갈로 입국하신다며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사업으로 오신 분이 개인 일에 나서 주실 지, 선교지에서 지난 10년간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뜨거운 기온에 먼 거리를 오고가며 시간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기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제가 축구장 준비를 구상 하기도 전에 전문가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때맞춰서 보내 주셔서 1차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었고, 소요 예산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고까지 하시는 말씀에 눈시울을 붉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네갈 김승주 선교사 올림.



주안에교회 3개월 성령의 인도하심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한 저희 가족을 주님은 태평양을 건너 이민 오던 첫 주일부터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태어나 30여년만에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신 영적인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가 멋쩍고 생소하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교회 일을 열심히 헌당하고 했는데 제 안에는 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와 주님에 대한 숙제를 다 못한 것과 같은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설교말씀이 분명 내 귀에 들리고 가슴에 와 닿아야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어찌나 한번씩 들리니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팬데믹의 위기에 부딪혀 영상예배로 '외식'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재개 되면서 성령님이 계속 교회를 옮겨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안에교회에 첫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최혁 목사님의 설교말씀이 귀에 너무도 잘 들려지고 가슴에 와 닿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날로 바로 새가족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4개월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저의 갈급했던 마음은 조금씩 채워져 갔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해 두시고 주안에씨앗, 주안말씀통독, 주안예배, 구약성경 맥 잡기 프로그램인 주안예빛 등 훈련 과정을 통해 지난 날의 나를 되돌아 보며 회개

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새벽예배에 나가서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늘려야겠다고,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기로. 성령님이 나태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새벽예배의 마지막을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로 마무리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예배의 설교 시간마다 영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쉽고 열정적으로, 유머스럽게 먹여주시고 제자를 많이 양성하고자 애 쓰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주안에교회에서의 나의 4개월은 지난 몇 년의 세월보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닌 주님의 종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검으로 사용하며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훈련과정을 이끌어 주신 장로님들, 전도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전미영 권사

주님이 주인되신 교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부활절에 처음으로 주안에 교회에 다니게 된 박준, 이영화 가정입니다.



박준, 이영화 집사

저희는 작년 4월에 미국에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운전하면서 주안에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다가 부활절에는 백신도 맞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 전화를 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고 부활절날 1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간 교회이지만 사역자님들 비롯한 모든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처음이라는 느낌이 없는 편안함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사님이 애들을 봐주셔서 출산하고 처음으로 온전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되시는 교회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남편이랑 바로 그날 등록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목사님이 연락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친절하게 얘기해주시고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참가한 목장 모임은 어색함이 없이 서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어느덧 주안에교회를 다닌 지도 반년이 되어가는데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매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주시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이 주인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며 사랑이 넘치는 주안에교회에 연결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나의 하루, 나의 취미

새벽기도후 오르는 산정, 저 멀리 아름다운 일출이...

새벽기도가 끝나고 곧장 118 프리웨이 서쪽 방향으로 5마일을 가서 Rocky Peak Exit에서 내리면 오른쪽으로 차를 주차할 곳이 나온다. 만약 주차할곳이 없으면 프리웨이 반대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차를 세울 공간이 훨씬 많다. 입구부터 천천히 하이킹을 하면 1시간 15분정도 걸려서 봉우리까지 도착할 수 있는데 왕복거리는 5마일보다 약간 짧다.

소방도로를 따라 올라감으로 길이 매우 넓어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새벽기도 후에 빨리 도착하면 서쪽으로는 달이 지고있고 동쪽으로는 해가 뜰 준비를 한다. 이곳은 생각보다 매우 안전한 곳이라 혼자 새벽에 올라가는 여성 하이커들이 많이 보인다. 이곳은 엘에이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경계선인데다 올라가면서 동쪽 (오른쪽)으로 채스위스지역의 부촌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시미밸리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유명한 가수도 오고, 영화도 촬영하며,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 Hummingbird



Nest Ranch를 멀리서 구경하며 산을 오르는 재미가 있다. 유럽 르네상스 양식의 흰 건물과 주변의 환경이 매우 이색적이다. 이곳에서 우리 교회 교인 자녀분들이 결혼식을 올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정상까지 24마일 정도 올라가면 편히 쉬고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반가이 맞아주는 넓은 바위에 앉아서 준비한 커피와 빵, 과일 등을 먹으며 새벽설교 때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진다. 하이킹을 할때는 미끄러지지 않고 발목을 잘 보호해주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안개가 자욱히 낀 날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서는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

자! 우리 모두 백두산 합시다. 백(백 살까지) 두(두 발로 걸어서) 산(산으로 하이킹).

| 임용자 기자 |

■ 교우일터 탐방/ 이인범 장로

사막 한가운데 태양열 발전소, 10만가구 전력 생산

청정에너지는 1세대 수력이나 조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얻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풍력, 태양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얻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면 풍력발전을 위해 바람개비가 수없이 많이 세워져, 때로는 바람을 맞으며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하지만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는데 반해, 태양을 이용한 발전은 해만 뜨면 언제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맑고 공기가 깨끗한 캘리포니아의 환경은 태양열 발전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 빅터빌 지역에 수없이 많은 태양열 발전소가 지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중인 곳이 있어서 그중 한 곳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이인범장로님께서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이곳은, 이미 완공을 하고 상업발전을 하고 있는데 무려 1400에이커 넓이에 발전용량이 100만 KW에 이릅니다. 100만 KW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10만가구 도시 전체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범 장로님은 현지에 숙소를 얻어 기거하시면서, 주말이면 교회 출석을 위해 LA로 오셨다가 월요일 새벽에 현지로 출근하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광활한 땅과 자연, 이 미국땅은 축복받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원이 고갈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에너지를 주시어 미국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편의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보람된 일이고, 또 인류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수고하시는 장로님의 건강과 늘 운전하며 오가시는 길이 안전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 이광영 집사 |

■ 정원 관리 및 Herb 재배/ 나형철 장로

겨울철 가지치기 · 거름 주기

내년에 크고 싱싱한 과일을 많이 수확하려면 겨울철에 나무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필요한 거름을 충분히 주고 적절한 가지치기로 나무의 세력을 키워 주며 또한 병충해를 방제해야 한다.

1. 겨울철 물 관리: 상록수- 오렌지, 레몬: 1주 1회 물 주기 낙엽 지는 과일 나무: 월 1회 물 주기

2. 거름주기: 뿌리는 1월경부터 활동을 시작 거름을 흡수하여 뿌리에 저장했다가 잎과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영양을 공급하므로 가급적 11월 경에 거름을 주어야 한다. * 잎이 떨어진 후 닭 분뇨거름과 땅 흙을 반반씩 섞은 후 가지 끝부분 아래쪽 흙 위에 돌아가며 2인치 두께로 퍼준다. * 인산 질 비료도 닭 분뇨거름을 퍼준 위에 뿌려주고 흙으로 덮는다. * 오렌지 레몬 등은 내년 3월경에 거름을 주도록 한다.

3. 가지치기: 내년에 튼튼한 가지가 나오도록 자극을 주며 나무가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11월~1월에 가지치기를 해준다.

* 가지치기 요령:

- 가지가 죽어 마른 것과 약한 가지를 자른다.
- 나무의 중심부로 향해 자란 가지, 땅 쪽을 향해 자란 가지를 잘라 준다.
-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가지, 서로 겹친 가지는 잘라준다.
- 나무 밑동 부분 땅속에서 자란 가지는 깊게 다 잘라준다.

* 단감나무 대추나무 무화과나무는 금년 자란 가지는 끝에서부터 1/3 정도 되는 곳에서 잘라낸다.

*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나무는 서로 겹친 가지를 모두 자르고 금년 새로 자란 가지의 1/3 정도 잘라준다.

4. 병과 벌레 예방: 금년에 번졌던 병의 병원균과 벌레들의 알을 없애기 위한 약품을 뿌려준다.

* 나무 밑에 있는 낙엽, 썩은 열매, 마른 가지를 모두 치운다.

* 홈디포에서 휴면기 살포약(Dormant Spray)을 구입하여 물에 섞어서 분무기로 살포한다.

진한 향기와 다양한 효능 / 로즈메리

Herb 는 서구에서 오랜 세월동안 약효성분으로 인해 애용 돼 오던 식물들을 말하는데 근래에는 음식에 맛을 더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더욱이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물질 제거 등 질병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인기도 많고 향긋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는 계절에 한국 분들에게 사랑받는 Herb 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소개하려 한다.

로즈메리(Rosemary)- 로즈메리는 잎이 뾰족한 다년생 상록 식물로 야외나 실내에서 재배 가능한데 스칠 때마다 향기가 강하고 시원하고 개운한 느낌을 준다. 똑바로 위로 자라는 종류와 땅으로 낮게 퍼지는 종류가 있다.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밝은 보라색의 꽃이 피어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1. 효능: *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를 예방 * 기억력 집중력 향상-공부방, 사무실에 건조된 로즈메리 묶음 비치 * 혈액 순환 개선 및 체내 독소 배출에 효과 *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 *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 방제 효과

2. 활용법: * 아로마 세러피(Aroma Therapy)등 피부 노화 예방 치료 * 말린 잎이나 싱싱한 잎으로 차를 만들어 마신다. *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 연한 잎을 넣어 비린 냄새를 제거하고 음식에 향기를 더한다. * 정원 경계에 울타리용으로 심어 토끼 등 야생동물 침입 방지 * 건물 입구에 심어 관상 및 향기를 즐기고 모기 등 해충 방제



■ 코람데오 소식

10월 9일, 영커플에서 코람데오를 섬겨 주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스케줄을 모두 뒤로 한 채 모두 한걸음에 달려왔다. 마치 도시를 떠나 멀리 MT를 온 것같은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고, 식욕을 돋는 맛난 음식이 한 상이었고 무엇보다 후각을 강타한 숯불 갈비는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을 넘어선 즐거움이었다. 어둑해질 무렵, 켜 놓은 조명은 하나됨의 분위기를 더욱 무르익어 가게 하였다.

■ 음악 칼럼/ 음악의 성인 베토벤

괴팍함과 기행이 빚어낸 깊은 울림의 음악

청력을 상실하고도 불굴의 의지로 명곡들을 탄생시킨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으로 불리며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음악가이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전환기에 활약하며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대음악가로 평가받는다. 당대를 풍미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그의 음악은 깊은 울림으로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다.

그는 독일의 본에서 태어났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거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았다. 생애 동안 수없이 많은 이사를 다녔는데, 그가 오스트리아 빈에 머무는 35년 동안에만 30~40 번의 이사를 다녔고 평생 60 번이 넘게 이사집을 꾸렸다.

베토벤을 세임자로 받은 집주인들은, 위대하지만 괴팍하다고 소문난 작곡가를 집으로 들이면서 여러 가지 고충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악상이 떠오르면 밤이 고 낮이고 구분하지 않고 피아노를 치며 작곡을 이어갔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음악은 연주회장에 가야 들 수 있는 고귀한 음악이었으나,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밤낮 없이 매일 들



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귀를 막으며 견디기 힘들어 했다.

그는 작곡이 뜻대로 잘 안 되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괴성을 지르거나 책상을 두드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심지어 벽에 머리를 짚기도 하고,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그대로 머리에 쏟아부어 열을 식히기도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소음과 피아노 소리에 이웃들은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다. 머리에 뿌린 물이 바닥을 흥건히 적셔도, 닦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아래층으로 물이 새서 참다 못한 집주인

이 그를 내쫓기도 했다. 귀가 들리지 않게 된 이후로 그의 기행은 정도가 더욱 심해졌고, 주변 이웃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그렇게 그는 한 곳에 머물지 못하며 끊임없이 이사를 다녀야 했다. 드리워진 커튼 사이로 달빛이 흐르는 창가에서 고요히 월광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하는 베토벤의 모습을 떠올리는 팬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웃들의 입장에서 베토벤은 층간소음 유발자이며 고약한 세입자였을 뿐이었다.

커피 애호가이기도 했던 베토벤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항상 원두 낱알 60개를 갈아 한 잔의 커피를 추출했다. 한 잔의 커피에 담긴 60알의 원두는 자신에게 60개의 아이디어를 가져다준다고 말하며 의식을 치르듯 매일 커피를 내렸다. 손님에게 커피를 대접할 때에도 그는 한참을 서서 1인당 60알의 원두를 세고 또 세며 정확한 양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거기서 유래하여 커피에서 '60'이라는 숫자는 '베토벤 넘버'라 불리고, 커피 원두 60알은 8~10g 정도의 양인데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하는 원두의 양과 같다고 한다.

| 황성남 집사 |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밸리채플을 단장하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다. 창고 공간을 새로 만들기 위해 지붕을 올리고, 교회 입구의 조명 간판을 교체하는 등 자원해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나서 교회 환경이 새로워지고 있다.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뉴스레터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류명수, 모니카 김,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더,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 양영, Paul Yang (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